

# 보 · 도 · 자 · 료



## 大宇通信, 유아교육용 CD타이틀 '꼭꼭 숨어라' 시판

- 이화여대, UCLA대학 등의 유아교육팀과 공동 개발
- 모든 과정 그림으로 설명...흥미유발, 자발적 학습 유도
- 한국어와 영어 동시 지원 ...자연스럽게 언어습득 가능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은 이화여대 아동연구소, 미국 UCLA대학, LA교육국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유아교육용 CD타이틀 「꼭꼭 숨어라」를 시판한다.

「꼭꼭 숨어라」는 주인공 어린이가 바둑이, 삼살이와 함께 이야기 별, 가면의 별, 탐정의 별, 게임의 별 등을 탐험하며 다양한 학습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논리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른의 도움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래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글을 익힐 수 있는 이야기 별에서는 짧고 쉬운 문장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글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스스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더해준다.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탐정의 별에서는 전화, 팩스, 편지 방문 등을 통해 서건을 접수하고 사건 현장의 단서를 통해 해당 동물

을 찾는 한편 그림 속의 노프북PC에 담겨진 각종 동물의 정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감으로써 논리적 판단력과 관찰력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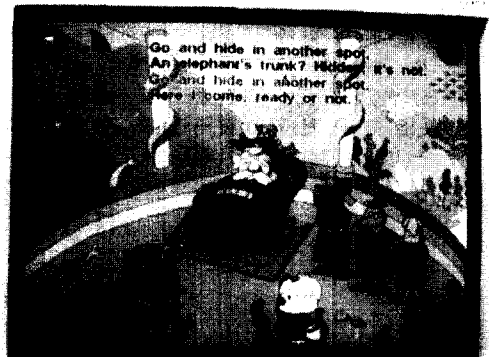
재미있는 가면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면의 별에서는 안경, 모자, 시계 등의 장신구를 응용해서 여러가지 얼굴모양을 한 가면을 스스로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완성가면을 바로 인쇄할 수 있어 성취감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놀이를 하면서 숫자를 익힐 수 있는 게임의 별은 징검다리 입을 통해 숫자의 모양과 양(量)적감각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함으로써 일반 학습지처럼 억지로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수(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 언어학, 멀티미디어 제

작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고등 개발로 완성한 유아교육용 CD타이틀 「꼭꼭 숨어라」는 산수, 과학 등의 과목을 각각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선명한 동화상에 애니메이션과 풍부한 음향 등으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시켜 언어, 수리, 과학, 창작 등 다양한 영역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CD타이틀 2장과 동화책을 포함, 3만8천 5백원(부가세 포함).

문의: 대우통신 홍보과 이정록 대리 / 최병호(전화 589-2053/4)



보·도·자·료



# 大宇通信, 잼 방지기능 보급형 고속복사기 시판

- 분당 47매 복사속도에 가격은 동급 대비 30% 저렴
- 3개의 CPU 채용...각 CPU마다 프로그램 독립적으로 감시 오동작 최소화
- 저소음·저오존 실현, 절전·전원차단 모드 채용... 환경오염 최소화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이 최근 국내 최초로 잼 사전방지 기능을 갖추고도 동급 모델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실현한 고성능 초저가 그린복사기(모델명:DCP-7060)의 시판에 들어감에 따라 고속복사기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라이카 대리점 인수를 계기로 복사기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대우통신이 미놀타와 기술 제휴로 이번에 시판에 들어간 이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고 판독 장치, 엔진, 옵션부를 각각 제어하는 3개의 CPU를 탑재함으로써 고장율을 감소시키는 한편 예러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복사용지의 급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사기가 이를 스스로 감지하여 재급지를 시도함으로써 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관련기능을 피해서 다른 기능을 가동시켜 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고장회피 기능 등의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우복사기 DCP-7060은 지금까지

지 국내에서 선보이지 않은 선형토너 공급방식( MTLs : Micro Toning Line Supply : 기존의 측면 토너를 고르게 뿌릴 수 있어 화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과, 8자형 현상제 혼합방식, 화상을 최상의 상태로 보정하는 자동화질보정 기능 등의 기능을 채용함으로써 화질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분당 47매의 고속 복사속도를 가진 이 제품은 자동원고송고장치를 이용할 때도 연속복사시와 같은 분당 47매의 복사속도를 실현하는 한편 3550매의 대량급지가 가능하고 2매의 원고나 4매의 원고를 1장에 복사할 수 있는 「2 in 1」, 「4 in 1」 복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용지절약은 물론 자료의 보존, 휴대에도 편리하다.

사무실 환경을 고려 저공해 설계를 한 대우복사기 DCP-7060은 절전모드 외에 1분에서 150분까지 설정 가능한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 복사기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근을 하더라도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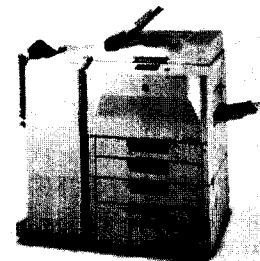
이와함께 오존 방출량을 30%이

상 줄이고 항균코팅된 조작 판넬을 채택함으로써 세균 감염을 차단하는 한편 정음설계로 조용한 사무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너 교환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들이 서비스맨에 의한 정기적인 청소를 받음으로써 공해물질 방지와 비용 낭비를 초래했던 것에 비해 청소레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도흐림, 흑띠발생, 화상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7백 30만원(부가세 별도)  
<제품문의 : 589-2492>

문의:대우통신 홍보과 이정록 대리 /최병호(전화 589-2053/4)



# 보 · 도 · 자 · 료



## 大宇通信, 인터넷 서비스 사업 참여

- 그룹망 구축으로 계열사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본격 착수
- 2000년 국내 시장점유율 20% 목표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위해 시스템사업본부내에 인터넷추진팀을 구성하고 대우그룹 전 계열사뿐만 아니라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91년도부터 인터넷에 가입하여 자체 연구망 및 사내 종합정보망을 구축, 인터넷을 활용해온 대우통신을 이번 인터넷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1단계로 대우그룹 R&D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대우, 대우전자, 대우중공업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갔다.

인터넷 메인 운영센터는 대우통신 종합연구소내에 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센터내 ATM-LAN망 및 1.544Mbps급 T1 백본(backbone)을 구축한 상태이다. 현재 그룹 및 각 계열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웹서버를 구축하고 있으며, 뉴스 서비스, 화일전송 서비스, E-Mail 서비스등의 기본 서비스는 물론 국내외 도서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LIBS 서비스, 사원들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자체 BBS(Bulletine Board System) 서비스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우통신은 올 상반기까지 T1급 전국망을 확보하여 대우그룹 전사업장, 협력사, 해외연구소 및 전세계 지점망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DB 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계열사들의 웹 서버를 완벽하게 구축해주는 SI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우통신은 이러한 그룹망 추진을 토해 인터넷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쌓은 다음 3단계로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오는 '98년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00년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사업 시장에서 20%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우통신은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인터넷 사용료로 일반 가입자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통신은 올해 1전동안 전세계적으로 개최될 "인터넷 월드 엑스포 '96"에도 그룹차원에서 참여하여 21세기를 향한 대우통신과

대우그룹의 비전 및 기술력을 제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문의:대우통신 홍보과 이정록 대리 /최병호(전화 589-2053/4)

보 · 도 · 자 · 료



# 大宇通信, '95년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1위

- 총 9백 8십건 등록으로 '94년대비 70.1% 신장
-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지적재산권 교육 실시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은 최근 (재)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 밝힌 '95년도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업체중 총 9백8십건으로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을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94년대비 70.1% 신장된 것으로 대우통신이 그 동안 교환기 및 통신기기등의 정보통신사업, 컴퓨터 및 시스템사업 등의 사업 다각화 및 타사와 차별화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발히 개발한 성과이다.

등록 프로그램은 주로 정보통신 관련 테이타통신과 유틸리티관련 시스템 프로그램들로서 대우통신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상품화하는데도 앞장서 이미 지난 '93년 국내 처음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한바다'를 상품화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유아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꼭꼭 숨어라'를 개발, 판매중에 있다.

또한 대우통신은 국내 최초로 전 사업장에 구축한 종합특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연구원의 특허검색 및 특허출원을 대폭 활성화 하

였으며, 특히 마인드를 제고하고 R&D 성과의 지적재산권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연구원을 초급, 중급, 책임자, 경영자등으로 구분하여 지적재산권 교육도 연중 실시중에 있다.

한편,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창작일로 부터 50년이고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 통신방등을 통한 전송이나 배포행위도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처벌이 될수 있는 등 그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대우통신은 프로그램저작권 등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2천년대 세계적인 종합정보통신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의: 대우통신 홍보과 이정복 대리 / 최병호(전화 589-2053/4)